
월간 일본 수산 동향

2022년 1월

본 자료를 활용하실 경우, 해외수산협력센터
(044-868-7833)로 문의/확인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일본 수산 동향

- | | |
|----------------------------------|----|
| (1) 포경/고래 식문화 관련 행사 개최 | 01 |
| (2) 일본 수산청, 참다랑어 어획 TAC 설정 검토 | 03 |
| (3) 참문어 보호, 육성을 위한 인공 암초 개발 | 05 |
| (4) 21년 어획량 가다랑어 2배, 꽁치, 살오징어 최저 | 07 |
-

일본 수산 동향

(1) 포경/고래 식문화 관련 행사 개최

일본이 상업적 포경을 재개한 이후, 국내에서 고래고기 소비를 늘리기 위한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고영양의 식품으로 홍보를 하는 등 고래고기의 식품/영양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포경과 고래 식문화를 주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행사가 일본 농림수산성 주최 하에 도쿄에서 개최되었음
- 이벤트는 일본 수산청 주최로 일본포경협회나 포경사업을 실시하는 공동선박이 협력하여 1월 28일까지 실시
- 밍크고래의 입모양을 실제 크기로 재현해 놓은 모형이나 고래의 이빨, 수염 등을 사용한 공예품, 고래 가공식품 등이 전시되어 있음
- 고래 통조림, 고래 엑기스를 넣은 영양제 등을 전시 관람객들에게 선물하기도 함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고래고기가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발레닌이 풍부하다는 부분을 강조하여 판매를 촉진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였음

출처 : 산케이 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125-JBHP63ERARMHVJGSOSGSEVANLU/>)

일본 수산 동향

(2) 일본 수산청, 참다랑어 레저어획 TAC 설정 검토

레저어획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일본 수산청이 주목하고 있다. 자원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는 큰 방향성 안에서 상업어획뿐만 아니라 레저어획까지 그 범주를 확장하여 검토하고 있다.

- 일본 수산청이 19일 자민당 본부에서의 수산기본정책위원회회의에서 제시한 차기수산기본계획 (3월 즈음 내각회의 결정 예정) 본문안을 공표
 - 참다랑어 레저어획(유어)을 단계적으로 법적으로 어획 가능량 (TAC) 하에 이행하는 수산유통적정화법의 대상어종으로 확대할 방침을 검토하는 등에 대한 방침을 명기했음
- 레저어획에 대해 “자원관리 관점에서는 어류를 채포한다는 점에서 상업적인 어획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견해
- 어업과 일관된 자원관리를 목표로 레저어획으로 어류를 얼마나 잡고 있는지 어획량에 대한 정보수집에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음
- 작년 6월 레저어획에 대한 규제 (30kg 미만 채포 금지, 30kg 이상 채포 보고 의무화 등)를 둔 참다랑어에 대해서도 언급
 - 규제의 운용 상황이나 정착 정도를 바탕으로 어업과 동일한 레벨의 본격적인 TAC 관리를 통한 수량 관리에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기재

-
- 밀어 등의 위험이 있는 어종의 유통 투명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시행 예정인 수산 유통 적정화법과 관련하여 대상을 공표

 - 수산청이 대상으로 공표한 일본산 전복, 해삼, 장어 치어 (시라스 우나기) 와 더불어 지정이 필요한 수산 동식물 지정을 실시할 것으로 기재함

출처 : 미나토 신문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19694>)

일본 수산 동향

(3) 참문어 보호, 육성을 위한 인공 암초 개발

어업, 지구 온난화, 환경 오염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바닷속 환경도 크게 변화하면서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수산 자원들도 최근 자취를 감추게 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대안으로써 어류가 살아가기 편한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자원을 보호·육성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 해양건설(카이요 건설)은 참문어 등의 문어류 보호와 육성을 목적으로 착저기의 어린문어의 적절한 먹이 장소, 은신처, 어미 문어의 산란장을 강화하는 셀너스 문어 타입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1980년 정도부터 일본 오카야마현의 어민들로부터 돌문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오카야마 현, 카가와 현 등에서 잠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제 해역에서 문어의 생태 정보를 수집했음

- 1981년 이후, 참문어 증식을 위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 예비 실험으로 자원 회복을 위해 해저에 투입된 문어가 서식할 수 있는 항아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 신란, 포란하고 있는 문어 개체를 확인했지만 조류에 의한 변동과 어업에 의해 파손된 항아리가 많아 부화까지 보고하는 것은 어려운 현황임을 추측함
- 1986~1999년 사이에 돌문어 증식을 위해 개발된 인공암초를 제작하여 바다에 투입했음
- 2000년~2010년에는 일본 카가와현 마루가메시의 혼지마, 호테지마에 문어 전용 시험초를 포함 5개 회사의 6종류의 암초를 설치, 참문어가 어떻게 이를 활용하는지를 잠수 조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
- 잠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금 더 개선하여, 문어가 서식하기 용이하도록 항아리가 붙어 있는 형태의 인공암초를 개발, 각지에 설치하고 있음

출처 : 미나토 신문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19776>)

일본 수산 동향

(4) 21년 어획량 가다랑어 2배, 꽁치, 살오징어 최저

일본 어업정보서비스센터에서 주요 어종별 생선 어획량 추이를 조사한 결과, 살오징어와 꽁치가 심각한 수준으로 어획량이 저조했다. 참치류의 평균 단가는 일괄적으로 약간 상승한 편이었다.



- 일본 어업정보서비스센터(JAFIC)가 정리한 '21년 주요 어종별 어획량은 가다랑어가 전년 대비 2.1배 증가, 명태가 10%, 고등어류 (참고등어, 망치고등어 합계)가 7% 증가, 전갱이가 13%, 방어가 20% 감소 (일본 전국 주요 어항 통계)
- 꽁치와 살오징어는 과거 최저치를 기록

- 정어리도 7% 감소한 56만3,694톤에 그침
- 가다랑어의 경우, 생선이 6만 6,000톤으로 최근 어획량 중에는 높은 편이었고, 냉동도 3% 증가한 16만 7,000톤으로 전년보다 많았음
- 다른 어종에 비해 심각하게 어획량이 부진했던 어종은 꽁치와 살오징어로 꽁치는 급격한 감소가 이어져 40% 감소한 1만7,000톤
- 살오징어는 생선이 1만5000톤으로 전년에 비해 반감한 수치, 냉동은 30% 증가해 7000톤 정도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
- 참치류 평균 단가는 일괄적으로 약간 상승한 편, 날개다랑어의 경우 생선이 7%, 냉동이 4% 높아진 단기였음

출처 : 미나토 신문(<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19853>)